

“부강한 나라를”... 광주 식당 ‘정권교체’ 무료식사

서구 쌍촌동 백반집 200명분 제공
식탁 위에선 대선 결과 ‘이야기꽃’
‘5·18밥집’ 운영난...양정자씨 인수
오월단체 회원도 봉사 손길 보태
“잘사는 광주, 5·18 헌법수룩 기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양정자(68) 사장.

“부강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주고, 5·18정신 헌법 수룩을 바라는 마음에 무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4일 오전 11시께 찾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백반집은 이른 점심식사를 위해 찾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 식당을 운영하는 양정자(68) 사장이 환영의 뜻으로 점심 무료 제공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평소에도 저렴한 가격에 알찬 한 끼를 내놓는 ‘가성비(가격 대비 고품질)’ 한식 뷔페로 동네주민들에게 사랑 받았던 곳이지만, 이날만큼은 ‘통 큰 나눔’이 더해져 가게 안은 더욱 훈훈한 정으로 채워졌다.

매장 앞에 붙은 ‘경축 이재명 대통령 당선, 오늘 점심 무료’ 안내문을 보고 일부러 찾아온 이들부터, 평소처럼 식사를 하러 왔다가 뜻밖의 ‘공짜 식사’에 놀란 단골들까지 “진짜 무료냐”, “잘 먹겠다”며 양 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육볶음과 두부조림을 비롯해 다양한 반찬들이 동이 날 틈도 없이 채워졌으며, 손님들은 밥과 국을 넉넉히 담아 따뜻한 한 끼를 즐겼다.

정은혜(51)씨는 “사장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꼭 오

는 단골집이다. 매일 메뉴가 바뀌지만, 재료가 항상 신선해서 훌륭한 맛을 자랑한다”며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식사했다”고 웃었다.

때마침 매장 TV에서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 장면이 나오자 손님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화면으로 쏠렸다. 식탁 위에서는 대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앞으로 5년간의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홍기동(78)씨는 “지난 정권에서 비상계엄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불안했다. 사회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누구나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했으면 한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기념해 무료 식사 나눔이 진행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백반집에서 손님들이 TV에서 나오는 취임 선서식을 지켜보며 식사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서영덕(63)씨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국정을 잘 운영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침체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식당에는 오후 1시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200여명의 시민들에게 든든한 식사가 제공됐다. 당초 이 식당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관계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나눔밥집’으로 운영돼 왔다. 양 사장은 5·18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음식 봉사 등 운영을 도왔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나눔

밥집이 문을 닫게 되자 지난해 4월 이 가게를 인수해 한식뷔페 식당으로 새롭게 출발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양 사장은 오월단체 회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뜻을 함께했고, 오월단체 회원들도 단골 손님이자 식당 운영 도우미로서 힘을 보태왔다. 이날도 오월단체 회원들이 식당 직원,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 지원에 나서며 구슬땀을 흘렸다.

무료 식사 제공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확실해진 직후 결정돼 주변에 공지됐다. 양 사장은 정권 교체를 맞아 국가와 광주의 발전, 그리고 5·18 정신이 헌

법 전문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양 사장은 “물론 직원 인건비와 재료비 등 무료 식사 제공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내란 극복의 염원이 모여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며, 지역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가 많이 침체돼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과 우리 광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바란다”며 “또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룩을 공언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이 오월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윤준명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대응은 새 정부의 책무”

“기후 정책은 사회 전체 통합 과제”
“시민과 함께 열린 환경 정책 펼칠 것”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새로 출범한 제21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환경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조합은 4일 성명문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겹친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이명박·윤석열 정부 시절의 환경정책 후퇴를 지적하며 “기후대응담”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고,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규제는 완화됐다. 4대강 재자연화와 국가물관리 정책 또한 방향을 잃고 후퇴했다”며 “이런 과거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빛 1·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는 등 과감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며 “탈석탄 로드맵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빠른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다”며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은 기후정의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정책은 더 이상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적 과제가 돼야 한다”며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정의는 어떤 개발 논리보다 앞서야 한다. 새 정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서 불... 70대 남성 숨져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광산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1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17층 아파트 13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53명을 투입해 21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 A씨가

이정준 기자

쓰러진 채 발견돼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불은 다른 세대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발생 당시 연기로 인해 일부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진도항 일가족 참극’ 40대 가장 영장실질심사

지씨, 범행 이유에 ‘묵묵부답’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자녀 2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 지모(49)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흰 마스크와 녹색 외투를 착용한 채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30

일 오후 5시12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자택을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7시께 전남 무안의 한 펜션에 도착해 가족과 함께 투숙했다. 이후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지씨는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다음날인 2일 오후 8시7분께 진도항에서 약 30m 떨어진 바다에서 인양됐으며, 아내와 아들 2명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

지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물로 빠져나온 뒤, 지인 5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44시간만인 2일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지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붙잡혔다. 정유철 기자

광주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나서야”

5·18민주광장서 기자회견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 하고 나섰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4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내란세력을 철저히 응징하고, 다시는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석열의 즉각적인 재구속과 특검을 통해 내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내란이 불가능한 법·제도적 시스템을 마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4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부는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제공

련해야 한다”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를 넘어서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선투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를 통해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협력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회대개혁을 통해 사회 불평등 해소, 차별과 혐오를 극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며 “광장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과 사회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과 사회대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명실상부 국민주권정부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승우 기자